# 준동사

원래는 동사이나, 목적어, 주어에 쓰기 위해 명사 등으로 역할을 바꾸었을때 그것을 준동사라고 한다.

원래의 동사가 leave 라면, To leave my town … Leaving my lover … City left by all … I am leaving my country 등의 문장에서 쓰인 To 부정사, 동명사, 현재 분사, 과거 분사는 모두 준동사이다.

# 분사구문

간단히 분사가 가장 앞에 오는 것을 말한다. 분사 구문으로의 변환을 위해선 그것이 부사절이어야 한다, 곧 맨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다. 접속사를 삭제하고, 만약에 현재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있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다면 또한 삭제한다. 최종적으로 동사를 현재(혹은 과거) 분사형으로 바꾼다. 해석에 의해 문장은 바뀔 수 있다.

부사절이 be + 분사여도 be는 생략한다. 만약 수동태로 be + 과거분사 라면, being을 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.

만약에 As I am tired 같은 문장에서 분사구문으로의 변환은 Being tired가 될 수 있다.그러나 이것 또한 생략가능하여 Tired로 시작할 수 있다.

수동태의 be, 진행형의 be, 보어의 be는 생략 가능한 분사 구문의 분사다.